

# 집단적 요소인 노조가족원이 국회의원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 창원을구를 중심으로 -

## The Influence of Korean Labor Unions' Family Member on the Direction of Congressional Voting Decisions in the Case of Changwon-Eul District

김 정 기 · 강 정 운(창원대학교 행정학과)

According to the voting theory of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labor union as well as race, religion, economic status has some influence on the direction of voting decisions.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whether Korean labor unions' family members show some influence on candidate feeling thermometer, a cognition of candidate personal quality, a cognition of policy issues argued by candidates, partisanship, and finally suggests a different voting behavior from general Korean voter in the direction of Congressional voting decisions in the case of Changwon-Eul district. Research methods for this paper are cross-tabulation, association analysis, t-test, multi-nominal logit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 is that Korean labor unions' family member as well as regionalism, age, gender has som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irection of Congressional voting decisions in the case of Changwon-Eul district.

### I. 서론

2000년 4월 13일에 치러진 제 16대 국회의원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총선거와는 구별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선거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다. 제16대 총선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선거라는 점에서 기대가 되었던 선거였다. 결과는 한나라당 133석, 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 민국당 2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 5석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여소야대국회가 탄생한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 사항 중 하나를 꼽으라면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일 것이다. 총선시민연대는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부패정치인 낙천대상자를 미리 공표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는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낙선운동을 펼쳤다. 이 결과로 수도권 지역 선거구에서는 낙선대상자가 떨어지는 영

\* 이 논문은 2000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됨.

향을 일부 미쳤으나, 영남 지역에서는 영향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부정부패 기성정치인을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치인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20-30대 층의 집단적 주권 포기를 야기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투표율이 57.2%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관위는 전체유권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20, 30대의 투표율(30% 대로 추정)이 낮아 투표율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2000.4.14, 6면).

투표의 집합적 결과 관점에서 볼 때 당선인명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에 의하면, 충청 지역은 지역주의 투표가 완화된 반면에 영·호남에서는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텃밭인 충청지역에서 자민련은 24개 선거구 가운데 11석을 차지하였으며, 민주당이 8석, 한나라당이 4석, 한국신당이 1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자민련이 텃밭인 충청지역에서 과반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충청권 유권자의 투표행태에서 지역주의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면에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의 29개 선거구에서 25석을 차지하였으며, 무소속이 4석을 얻었다. 그러나 당선이 되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선거운동 중에 선언한 무소속 4명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호남지역의 의석을 100%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은 텃밭인 영남의 65석 가운데 무소속 1석을 제외하고 64석을 모두 확보하였다. 따라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은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고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남지역에서 지역주의가 투표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명백하나, 민주노동당 후보가 활약한 울산지역과 창원울구에서 영남지역의 유권자가 전적으로 지역주의에 의하여 투표선택을 하였다고 보기는 무리이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노조를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2000년 1월 30일 창당을 선언하였다. 영남지역에서 특이한 점은 민주노동당(민노당)이 노동자 밀집주거지역인 창원과 울산지역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제 16대 총선에 전략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이다. 울산북구와 창원울구의 경우 노동당 후보인 최용규 후보와 권영길 후보의 경우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 16대 총선에서 울산북구와 창원울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최용규와 권영길)가 선전하였으나 원내진출에는 실패하였다. KBS와 SBS의 콘소시엄으로 구성된 출구조사팀이 개표시간과 더불어 '적어도 민주노동당이 한 석은 확보할 것이다'라는 출구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에 대한 희망이 부풀었다<sup>1)</sup>. 개표결과에 의하면 울산북구 선거구에서 민노당 최용규 후보가 18,867(41.8%) 표를 얻어 19,430(43%) 표를 획득한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에게 낙선하였으며, 창원울구에서 민주노동당 대표인 권영길 후보도 36,579 (38.7%)를 얻어서 41,729 (44.1%)를 획득한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에게 석패하였다. 울산 북구는 후보 선출의 후유증으로 단결된 선거투쟁에서 실패하였던 것 같다 (김산, 2000).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최용규후보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고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당의 인준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인준 이후 최용규 후보진영이 통합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상범 지지진영이 당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창원울구에는 제 15대 대선에 출마하여 유권자에게 인지도

1) KBS와 SBS의 콘소시엄 출구조사팀의 출구조사결과는 울산북구의 경우에는 민노당 최용규 후보 46.2%와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 42.22%를 득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ttp://www.joins.com/series/vote/map7\\_4.html](http://www.joins.com/series/vote/map7_4.html)), 창원울구의 경우에는 민노당 권영길 후보 45.91%와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 37.30%를 득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joins.com/series/vote/map15\\_2.html](http://www.joins.com/series/vote/map15_2.html)).

가 있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권영길 후보가 출마하였다. 양대 노총이 연합하여 선거운동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편지 쓰기, 꽃 보내기 운동, 촛불행진, 무료세차와 같은 새로운 선거캠페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본고에서는 노조가 창원을구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창원을구에 대한 써베이 데이터에 기초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즉,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민주노동당 대표가 출마하였던 창원을구에서의 선거결과를 노조 중심으로 유권자의 행태적 관점에서, 노조가 심리적 투표요인과 투표선택에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나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노조와 같은 사회집단요인에 의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집합적 자료가 아닌 써베이 데이터에 기초한 최초의 경험적 실증연구는 컬럼비아대학파(Lazarsfeld, Berelson and Gaudet, 1948; Berelson, Lazarsfeld and McPhee, 1954)이다. 사회적 지위(교육, 소득, 직업), 종교, 나이와 더불어서 노동조합으로서 유권자의 투표선택행위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Axelrod (1972, 1986)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서 사회경제적인 집단과 대통령 선거의 투표선택과의 이 변량 연관성을 연구하여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Erikson, Lancaster, and Romero (1988)은 다변량 통제결어는 허위관계로부터 집단 영향력을 분리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1952년부터 1984년까지의 대통령선거를 다변량 로짓방법을 적용하여 집단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종, 종교, 계층과 더불어서 노조가 투표선택과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조에 소속된 Blue-collar는 친민주당적인 투표행태를 보이며, White-collar는 친공화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저소득층에 영향을 주는 복지확대정책적 지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48년 선거에서 노조원은 비노조원에 비교하여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향을 보였다(Berelson, Lazarsfeld and McPhee, 1954: 37-53). 1998년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노조 유권자에게 호소하여 민주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였다(Schmidt, Shelley and Bardes, 1999: 341). 그러나 노조와 같은 사회계층은 미국정치에서 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1960년대 이래로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임금노동자의 노조 가입비율은 1950년대의 36%에서 현재는 14%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Schmidt, Shelley and Bardes, 1999: 254). 미국의 노조는 자발적인 회비를 각출하여 정치행위위원회(PAC)를 구성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도와준다(Schmidt, Shelley and Bardes, 1999: 261). 집단적 요인 외에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당, 후보자의 자질, 정부의 운영성과평가, 공공정책이슈, 이념, 경제상황, 느낌과 감정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노조와 같은 집단적 요소들은 유권자 투표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당일체감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평가, 정부의 운영성과평가, 공공정책이슈, 이념, 경제상황, 후보자에 대한 느낌과 감정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Kim, 1996).<sup>2)</sup> 이 중에서 정당일체감, 후보자에 대한 느낌, 후보자의 자질인지, 공공정책이슈가 투표선택에 가장 가

2) 미국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노조가족원과 같은 집단적 요소가 정당일체감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느낌과, 후보자의 자질을 인식하는 것과, 후보자가 주장하는 이슈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인식하는 것과, 거시적인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또한 매개변수역할을 하여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까운 투표요인으로 보여진다. 후보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느낌 (comparative feeling thermometer)은 투표선택을 위한 유권자의 최종적인 친근감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Page and Jones, 1979; Kenny and Rice, 1988)

1966년과 1979년 사이에 영국의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계급집단의 크기를 줄이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약 절반이 기인하며, 그 나머지는 노동당이 지지기반인 집단에게 호소력을 결여하였다는 것이다 (Franklin, 1985). 진보정당인 영국의 노동당은 1979년 총선 이래 1992년 총선까지 4번 연속하여 패배하였다. 1997년 총선에서 보수당 소속의 존 메이저 (John Major) 총리는 6.5%로 떨어진 실업률을 제시하고 그의 행정부가 이룩한 국가 경제의 회복을 강조하며 집권을 계속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반면에 1994년 7월 이래로 노동당을 이끌고 있는 토니 블레어 (Tony Blair)는 노동당을 정치적 중도노선에 가깝도록 재편성하여, 사회주의자들의 과거를 과감히 탈피하고, 노동조합자금에의 의존도를 줄여나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9: 200). 유권자들은 보수당이 경제적인 경쟁력에 대한 평판을 잃었다고 인식하였으며, 다수의 영국국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보건, 교육, 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Anthony King, 1998).

1990년 11월에 창당된 진보정당인 민중당은 1992년 제14대 총선거에서 51명이 출마하여 출마지역 평균 6.5%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6대 총선에서 21명의 후보를 낸 민주노동당의 평균득표율은 13.4%에 이르렀다 (<http://www.kdip.org/>). 이로 인해 한국의 투표행태 분석에서 노조와 같은 집단에 기초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장상환, 2000; 김산, 2000). 장상환(2000)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의 실패원인으로 창당을 너무 늦게 함으로써 선거에 너무 늦게 임하였으며, 노동자 민중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쟁점형성이 미흡했고, 울산복구의 경우는 경선 후유증이 작용하여 패배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산(2000)도 울산복구의 민노당 최용규 후보의 패인으로 경선 후유증을 들고 있다. 이들의 분석은 집합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한 것으로서 유권자 개인의 투표선택행태에 관하여는 설명하여주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노정계 자료에 의하면 2000년 4월 현재 창원은 127개 노조에 약 34,600명의 노조원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창원갑구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창원을구에서는 권영길 민노당 대표를 옹립함으로써 경선 후유증도 없었으며, 민노총 노조와 한노총 노조가 단합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합적 데이터로서는 창원을구의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써베이 데이터에 기초하여 창원을구의 유권자 투표행태를 노조와 같은 사회 집단적 요인과 투표선택에 근접한 요인간에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Ⅲ. 연구디자인

#### 1. 변수

가설에 사용할 변수에 대한 정의와 측정은 다음과 같다.<sup>3)</sup>

##### 1) 종속변수

###### (1) 투표선택

다항 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석의 편의상 10% 이상 득표한 한나라당 이주영 (44.14%,1위), 민주당 차정인 (13.27%,3위), 민노당 권영길 (38.69%,2위) 후보자만을 투표선택에 포함하였다. 자민련의 김영성 (1.79%,5위)과 민국당의 심태희 (2.12%,4위) 투표선택의 변수설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한나라당 이주영을 1, 민주당 차정인을 2로, 민노당 권영길을 0으로 코딩하였다.

###### (2) 후보자들에 대한 느낌

투표선택에 대한 최종적인 친근감으로 추정되는 각각 후보자들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기 위하여 1(매우 따뜻함)에서 7(매우 차가움)까지의 7점 척도로 후보자들에 대한 느낌을 각각 측정하였다.

###### (3) 후보자에 대한 자질평가

개별 후보자에 대한 자질평가로서, 유권자로 하여금 1(매우 우수)에서 7(매우 부족)까지의 7점 척도로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을 각각 측정하도록 하였다.

###### (4)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책이념

후보자의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한 인지와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책이념을 유권자로 하여금 1(매우 진보)에서 7(매우 보수)까지의 7점 척도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과 본인의 정책이념을 각각 측정하도록 하였다.

###### (5) 지지정당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한나라당(1), 새천년민주당(2), 자민련(3), 민국당(4), 한국신당(5), 민노당(6), 지지정당없다(7), 무응답(8)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다. 지지정당은 노조가족 유권자와 투표선택 사이의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3)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 (1) 노조<sup>4)</sup>가족 유권자

노조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조가족 유권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노조가족 유권자와 비노조 일반유권자로 구분하였다. 노조가족 유권자를 1로 코딩하였으며, 비노조 일반유권자는 0으로 코딩하였다.

### (2) 성별(여자)

투표선택에 관한 다항 로짓분석을 함에 있어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남성을 0으로, 여성을 1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남성을 준거 값으로 설정하였다.

### (3) 연령

투표선택에 관한 다항 로짓분석을 함에 있어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유권자의 연령을 10살 단위로 묶어서 60세 이상을 준거 값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20대, 30대, 40대, 50대는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서 20대이면 1로 아니면 0으로, 30대이면 1로 아니면 0으로, 40대이면 1로 아니면 0으로, 50대이면 1로 아니면 0으로 각각 코딩하였다.

### (4) 출신지역

유권자의 출신지역도 투표선택에 관한 다항 로짓분석을 함에 있어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유권자의 영남이외의 지역을 준거 지역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서 유권자의 출신지역이 대구/경북이면 1로 아니면 0으로, 그리고 유권자의 출신지역이 부산/울산/경남이면 1로 아니면 0으로 각각 코딩하였다.

## 2. 가설

본 논문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투표에 관한 논의 중 다음과 같은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노조가족 유권자는 투표선택에 근접한 요인인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느낌(feeling), 후보자에 대한 자질평가,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한 인지, 지지정당에 있어서 일반 유권자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영남지역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자와 진보정당인 민노당 후보자에 대하여 노조가족원 유권자와 일반 유권자의 느낌이 다른 행태를 보일 것이다. 노조에 기반을 둔 민노당 후보에게 노조원 가족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며 한나라당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차갑게 느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연구가설 2: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노조원 가족 유권자가 일반유권자에 비해

---

4) 다원주의사회에 기반을 두고 분권화 되어있는 미국사회의 노동조합과 중앙집권화된 한국과 같은 국가조합주의사회에서의 노동조합은 물론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국가조합주의에서의 노조는 고용자집단과 국가와 함께 소득과 사회정책에 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있다. 그러나 두 종류의 노조 구성원이 모두 집단적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 민노당 권영길 후보의 자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것이며, 한나라당 후보의 자질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3: 노조가족 유권자는 한나라당 후보를 비롯하여 보수정당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에 대하여 이념척도 상에서 일반유권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멀게 또는 이질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노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족 구성원은 다른 보수정당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으로부터 실제보다 멀리 투사하여 인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가설 4: 지지정당에 있어서 노조가족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에 비하여 민주노동당을 상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기반이 노조이기 때문이다.

연구가설 5: 유권자의 지지정당은 투표선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노조가족원이라는 집단을 대표하는 민노당을 통하여 투표선택을 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연구가설 6: 노조가족원이라는 집단적 요소가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나 민주당 차정인 후보 보다는 민노당 권영길 후보를 투표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집단을 나타내는 성별, 연령과 출신지역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그러할 것이다.<sup>5)</sup> 노조가족이라는 집단적 요소는 정당일체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과 동시에 직접적인 투표선택 요소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 3. 데이터수집과 분석방법

#### (1) 자료수집

표본추출을 위한 표집틀로서는 전국관 2000 CD번호부 가운데 창원을구에 해당하는 일반전화 가입자를 사용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동별로 노동자 구성비가 차이가 있으므로 동별로 표집틀을 층화한 후에 동별 일반전화가입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에 표준화된 전화면접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선거일전 일주일 동안 (2000년 4월 7일부터 4월 12일 까지)<sup>6)</sup> 실시하였다. 총표본은 1101명이었다. 이중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의사를 밝힌 유권자는 약 50%인 546명이었으며, 미정이 291명, 응답거부 및 기권하겠다는 유권자가 264명이나 되었다.

#### (2) 분석방법과 도구

유권자의 노조가족 여부와 매개변수로 추정되는 후보자에 대한 느낌(feeling), 후보자에 대한 자질평가에 대하여 각각 평균과 교차분석을 하였고 연관성을 측정하였다.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과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책이념간의 거리를 유권자의 노조가족여부와 비교하기 위하

5) 이 외에 경제적 생활수준과 학력 등도 서구의 투표행위이론에서는 다소간에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을 위한 예비 설문조사에서 창원을구 유권자들이 특히 학력에 대하여 응답을 꺼렸으며 구간척도로 질문한 경제적수준에 관한 문항에서도 응답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하여 서열척도로 질문한 결과 약 70%가 응답하였으나 문제는 응답이 한 가운데(중층)로 몰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력과 경제적수준의 변수가 생략되었으며 한계라고 사료된다.

6) 투표행태를 분명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거후 조사가 보다 바람직 할 수도 있으나 선거전 조사와 비교할 때 장단점이 있다. 선거전 조사는 투표일 날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선거후 조사는 기표결과에 의하여 유권자의 응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여 평균값과 중위수를 구하였다. 유권자의 노조가족 여부와 지지정당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연관성 분석을 하였으며, 지지정당과 투표선택(투표후보) 사이에도 교차분석과 연관성분석을 하였다.

노조가족 유권자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조가족 유권자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성별,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 출신지역(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투표선택에 관한 다항 로짓분석을 하였다. 투표선택에 관한 다항 로짓분석에서 민노당 권영길 대 한나라당 이주영, 그리고 민노당 권영길 대 민주당 차정인을 대비시키는 분석을 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PSS/WIN 7.5 한글판을 사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후보자에 대한 느낌

〈표 1〉에 의하면 창원울구의 유권자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 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차정인 후보 순서로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노당 권영길 후보(3.54)와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에 대한 느낌(3.51)의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족 유권자와 일반유권자 사이의 (한)이주영 후보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파악한 것이 〈표 2〉에 제시되었다. 교차표에 의하면 가족 중에 노조원이 있는 유권자일수록 일반유권자에 비교하여 (한)이주영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성 (에타제곱=0.21)은 약한 관계이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노조가족 유권자와 일반유권자 간의 (노)권영길 후보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파악한 것은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의 교차표는 〈표 2〉와는 역으로 가족 중에 노조원이 있는 유권자일수록 일반유권자에 비교하여 (노)권영길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연관성 (에타제곱=0.34)은 비록 약한 관계이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관성이다.

〈표 1〉창원을 후보자에 대한 느낌(feeling)

|    |      | (노)권영길에<br>대한 느낌 | (한)이주영에<br>대한 느낌 | (민)차정인에<br>대한 느낌 | (자)김영성에<br>대한 느낌 | (국)심태회에<br>대한 느낌 |
|----|------|------------------|------------------|------------------|------------------|------------------|
| N  | 통계량  | 379              | 437              | 393              | 344              | 328              |
| 평균 | 통계량  | 3.54             | 3.51             | 3.72             | 3.93             | 3.97             |
|    | 표준오차 | 4.68E-02         | 4.41E-02         | 3.87E-02         | 2.92E-02         | 2.09E-02         |



〈표 2〉 (한)이주영 후보에 대한 느낌과 노조가족원의 교차표(카이제곱=28.00\*\*)

|                        |     | 이주영 후보에 대한 느낌 |       |           |             |           |      | 전체     |
|------------------------|-----|---------------|-------|-----------|-------------|-----------|------|--------|
|                        |     | 매우<br>따뜻함     | 따뜻함   | 약간<br>따뜻함 | 아무 느낌<br>없음 | 약간<br>차가움 | 차가움  |        |
| 가족<br>중에<br>노조<br>가입자? | 예   |               | 2     |           | 45          | 5         |      | 52     |
|                        |     |               | 3.8%  |           | 86.5%       | 9.6%      |      | 100.0% |
|                        | 아니요 | 9             | 75    | 58        | 227         | 10        | 4    | 383    |
|                        |     | 2.3%          | 19.6% | 15.1%     | 59.3%       | 2.6%      | 1.0% | 100.0% |
| 전 체                    |     | 9             | 77    | 58        | 272         | 15        | 4    | 435    |
|                        |     | 2.1%          | 17.7% | 13.3%     | 62.5%       | 3.4%      | .9%  | 100.0% |

\*p<.05, \*\*p<.01

〈표 3〉 (노)권영길후보에 대한 느낌과 노조가족원의 교차표(카이제곱=53.85\*\*)

|                        |     | 권영길 후보에 대한 느낌 |       |           |             |           |     |           | 전체     |
|------------------------|-----|---------------|-------|-----------|-------------|-----------|-----|-----------|--------|
|                        |     | 매우<br>따뜻함     | 따뜻함   | 약간<br>따뜻함 | 아무 느낌<br>없음 | 약간<br>차가움 | 차가움 | 매우<br>차가움 |        |
| 가족<br>중에<br>노조<br>가입자? | 예   | 6             | 12    | 18        | 12          |           |     |           | 48     |
|                        |     | 12.5%         | 25.0% | 37.5%     | 25.0%       |           |     |           | 100.0% |
|                        | 아니요 | 6             | 38    | 40        | 230         | 12        | 2   | 1         | 329    |
|                        |     | 1.8%          | 11.6% | 12.2%     | 69.9%       | 3.6%      | .6% | .3%       | 100.0% |
| 전 체                    |     | 12            | 50    | 58        | 242         | 12        | 2   | 1         | 377    |
|                        |     | 3.2%          | 13.3% | 15.4%     | 64.2%       | 3.2%      | .5% | .3%       | 100.0% |

\*p<.05, \*\*p<.01

노조가족원 유무간의 후보자 느낌에 대한 평균비교를 한 것이 〈표 4〉에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노조가족 유권자와 일반유권자가 (한)이주영 후보에 대한 느낌이 각각 4.02와 3.43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노)권영길 후보에 대한 느낌도 각각 2.75와 3.65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가족 유권자는 일반유권자에 비하여 (노)권영길 후보에 대하여 보다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으며, (한)이주영 후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갖고 있다.

〈표 4〉 노조가족원 유무간의 후보자 느낌에 대한 평균비교

|               | 가족 중에 노조 가입자? | N   | 평균   | 표준오차<br>평균 | t-값   |
|---------------|---------------|-----|------|------------|-------|
| 권영길 후보에 대한 느낌 | 예             | 48  | 2.75 | .14        | -6.75 |
|               | 아니요           | 329 | 3.65 | 4.66E-02   |       |
| 김영성 후보에 대한 느낌 | 예             | 46  | 4.04 | 6.92E-02   | 1.53  |
|               | 아니요           | 296 | 3.91 | 3.21E-02   |       |
| 차정인 후보에 대한 느낌 | 예             | 45  | 4.00 | 6.36E-02   | 2.60  |
|               | 아니요           | 346 | 3.68 | 4.28E-02   |       |
| 이주영 후보에 대한 느낌 | 예             | 52  | 4.02 | 7.00E-02   | 4.38  |
|               | 아니요           | 383 | 3.43 | 4.84E-02   |       |
| 심태희 후보에 대한 느낌 | 예             | 45  | 4.02 | 2.22E-02   | 1.07  |
|               | 아니요           | 281 | 3.96 | 2.40E-02   |       |

2. 후보자에 대한 자질평가

후보자에 대한 자질평가를 나타내는 〈표 5〉에 의하면 창원을구의 유권자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노동당 권영길 후보(3.25),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3.35), 민주당 차정인 후보(3.52) 순서로 후보자의 자질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 권영길 후보(3.25)와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에 대한 자질평가(3.35)의 차이는 95%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족 유권자와 일반유권자 간의 (한)이주영 후보에 대한 자질평가의 차이를 파악한 것이 〈표 6〉에 제시되었다. 표에 의하면 가족 중에 노조원이 있는 유권자일수록 일반유권자에 비교하여 (한)이주영 후보의 자질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관성(에타제곱=0.29)은 약한 관계이나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관성이다. 노조가족 유권자와 일반유권자 간의 (노)권영길 후보에 대한 자질평가의 차이를 파악한 것은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의 교차표는 〈표 6〉과는 역으로 가족 중에 노조원이 있는 유권자일수록 일반유권자에 비교하여 (노)권영길 후보의 자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연관성(에타제곱=0.27)은 비록 약한 관계이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관성이다.

〈표 5〉 창원을 후보자에 대한 자질평가

|    |      | (노)권영길<br>자질 | (한)이주영<br>자질 | (민)차정인<br>자질 | (자)김영성<br>자질 | (국)심태희<br>자질 |
|----|------|--------------|--------------|--------------|--------------|--------------|
| N  | 통계량  | 284          | 319          | 282          | 236          | 225          |
| 평균 | 통계량  | 3.25         | 3.35         | 3.52         | 4.08         | 4.16         |
|    | 표준오차 | 6.61E-02     | 6.28E-02     | 7.11E-02     | 5.69E-02     | 5.79E-02     |

〈표 6〉 (한)이주영 후보의 자질평가와 노조가족원의 교차표(카이제곱=26.68\*\*)

|               |     | 이주영 후보의 자질 |       |       |       |       |       | 전 체    |
|---------------|-----|------------|-------|-------|-------|-------|-------|--------|
|               |     | 매우 우수      | 우수    | 약간 우수 | 보통    | 약간 부족 | 부족    |        |
| 가족 중에 노조 가입자? | 예   |            | 1     | 6     | 14    | 4     | 7     | 32     |
|               |     |            | 3.1%  | 18.8% | 43.8% | 12.5% | 21.9% | 100.0% |
|               | 아니요 | 10         | 65    | 90    | 101   | 10    | 11    | 287    |
|               |     | 3.5%       | 22.6% | 31.4% | 35.2% | 3.5%  | 3.8%  | 100.0% |
| 전 체           |     | 10         | 66    | 96    | 115   | 14    | 18    | 319    |
|               |     | 3.1%       | 20.7% | 30.1% | 36.1% | 4.4%  | 5.6%  | 100.0% |

\*p<.05, \*\*p<.01

〈표 7〉 (노)권영길후보의 자질평가와 노조가족원의 교차표(카이제곱=34.48\*\*)

|               |     | 권영길후보의 자질 |       |       |       |       |      | 전 체    |
|---------------|-----|-----------|-------|-------|-------|-------|------|--------|
|               |     | 매우 우수     | 우수    | 약간 우수 | 보통    | 약간 부족 | 부족   |        |
| 가족 중에 노조 가입자? | 예   | 10        | 13    | 12    | 7     |       | 2    | 44     |
|               |     | 22.7%     | 29.5% | 27.3% | 15.9% |       | 4.5% | 100.0% |
|               | 아니요 | 8         | 45    | 58    | 114   | 7     | 8    | 240    |
|               |     | 3.3%      | 18.8% | 24.2% | 47.5% | 2.9%  | 3.3% | 100.0% |
| 전체            |     | 18        | 58    | 70    | 121   | 7     | 10   | 284    |
|               |     | 6.3%      | 20.4% | 24.6% | 42.6% | 2.5%  | 3.5% | 100.0% |

\*p<.05, \*\*p<.01

〈표 8〉 노조가족원 유무간의 후보자 자질에 대한 평균비교

|           | 가족 중에 노조 가입자? | N   | 평균   | 표준오차 평균  | t-값   |
|-----------|---------------|-----|------|----------|-------|
| 권영길후보의 자질 | 예             | 44  | 2.55 | .19      | -4.73 |
|           | 아니요           | 240 | 3.38 | 6.69E-02 |       |
| 김영성후보의 자질 | 예             | 29  | 4.52 | .18      | 2.92  |
|           | 아니요           | 207 | 4.02 | 5.85E-02 |       |
| 차정인후보의 자질 | 예             | 33  | 4.06 | .21      | 2.80  |
|           | 아니요           | 249 | 3.45 | 7.44E-02 |       |
| 이주영후보의 자질 | 예             | 32  | 4.31 | .20      | 5.34  |
|           | 아니요           | 287 | 3.24 | 6.33E-02 |       |
| 심태희후보의 자질 | 예             | 28  | 4.54 | .19      | 2.44  |
|           | 아니요           | 197 | 4.11 | 5.97E-02 |       |

노조가족원 유무간의 후보자 자질에 대한 평균비교를 한 것이 <표 8>에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노조가족 유권자와 일반유권자가 (한)이주영 후보에 대한 자질인식이 각각 4.31과 3.24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노)권영길 후보에 대한 자질인식도 각각 2.55와 3.38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가족 유권자는 일반유권자에 비하여 (노)권영길 후보의 자질을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이주영 후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 3.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인지와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책이념

<표 9>에 의하면 창원울구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책이념의 평균은 2.82이고 중위수는 3(약간 진보)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노)권영길 후보가 제시한 정책공약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이념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공약(평균=2.63, 중위수=2)이었던 반면에 (한)이주영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평균은 3.77에서 4.21, 중위수는 모두 4)은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책이념 보다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노)권영길 후보가 제시한 정책공약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이념에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웠지만, 정책공약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노)권영길 후보는 보다 보수적인 정책공약개발에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으며, (한)이주영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은 본인들이 제시한 정책공약 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개발을 하였던 것이 보다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 수가 적음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표 10>에 나타난 노조가족 유권자는 <표 11>에 나타난 비노조 일반 유권자에 비하여 본인이 선호하는 정책이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조가족 유권자는 비노조 일반 유권자에 비하여 (노)권영길 후보가 제시한 정책공약을 보다 진보적으로 보고 있으며, (한)이주영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하여는 일반유권자에 비하여 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조가족 유권자들은 비노조 일반 유권자에 비하여 (한)이주영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공약이 보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9> 창원을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 인지와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책이념

|      | (노)권영길<br>정책공약 | (한)이주영<br>정책공약 | (민)차정인정<br>책공약 | (자)김영성<br>정책공약 | (국)심태희<br>정책공약 | 유권자의<br>정책이념 |
|------|----------------|----------------|----------------|----------------|----------------|--------------|
| N    | 192            | 160            | 138            | 98             | 93             | 481          |
| 평균   | 2.63           | 3.77           | 3.78           | 4.21           | 4.19           | 2.82         |
| 표준오차 | 7.10E-02       | 8.51E-02       | 8.91E-02       | 9.32E-02       | 9.21E-02       | 5.01E-02     |
| 중위수  | 2              | 4              | 4              | 4              | 4              | 3            |

〈표 10〉 노조가족 유권자의 후보자 정책공약 인지와 본인의 정책이념(a)

|                     | N  | 평 균  |      | 중위수  |
|---------------------|----|------|------|------|
|                     |    | 통계량  | 표준오차 | 통계량  |
| 권영길후보의 정책공약         | 44 | 2.27 | .11  | 2.00 |
| 이주영후보의 정책공약         | 20 | 4.50 | .22  | 4.00 |
| 차정인후보의 정책공약         | 20 | 4.30 | .18  | 4.00 |
| 김영성후보의 정책공약         | 17 | 4.35 | .17  | 4.00 |
| 심태회후보의 정책공약         | 17 | 4.35 | .17  | 4.00 |
| 유권자의 정책이념           | 56 | 2.43 | .11  | 2.00 |
| a 가족 중에 노조 가입자? = 예 |    |      |      |      |

〈표 11〉 비노조가족 유권자의 후보자 정책공약 인지와 본인의 정책이념(a)

|                       | N   | 평 균  |          | 중위수  |
|-----------------------|-----|------|----------|------|
|                       |     | 통계량  | 표준오차     | 통계량  |
| 권영길후보의 정책공약           | 147 | 2.73 | 8.43E-02 | 3.00 |
| 이주영후보의 정책공약           | 140 | 3.66 | 8.87E-02 | 4.00 |
| 차정인후보의 정책공약           | 118 | 3.69 | 9.76E-02 | 4.00 |
| 김영성후보의 정책공약           | 81  | 4.19 | .11      | 4.00 |
| 심태회후보의 정책공약           | 76  | 4.16 | .11      | 4.00 |
| 유권자의 정책이념             | 422 | 2.87 | 5.47E-02 | 3.00 |
| a 가족 중에 노조 가입자? = 아니요 |     |      |          |      |

4. 지지정당과 노조가족 유무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노조가족 유권자와 일반유권자 사이의 지지정당관계를 교차 분석한 것이 〈표 12〉에 제시되었다. 교차표에 의하면 가족 중에 노조원이 있는 유권자는 약 68%가 일방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노조가족 유권자는 각각 1.8%에 불과하다. 반면에 비노조 일반 유권자 가운데 27.7%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반면에 민노당 지지자는 9.0%에 불과하다. 특이한 점은 일반 유권자 가운데 민노당 지지율(9.0%)이 민주당 지지율(6.1%)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노조가족 유무와 지지정당간의 연관성(람다=0.68)은 매우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투표후보와 지지정당간의 관계를 〈표 13〉이 보여주고 있다. 투표한 유권자의 지지정당과 투표선택도 매우 강한 연관성(람다=0.69)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과 〈표 13〉이 의미하는 바는 투표한 유권자의 노조가족 유무는 지지정당 선택에 영향을 주고 지지정당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 〈표 13〉의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134명 중 가장 많은 41.8%가 (노)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원인은 권영길 후보의 노동과 복지

정책에 초점을 둔 선거운동이 무당파 유권자에게 어필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12〉 지지정당과 노조가족 유권자의 교차표(카이제곱=253.06\*\*)

|      |       | 가족 중에 노조 가입자? |              | 전 체          |
|------|-------|---------------|--------------|--------------|
|      |       | 아 니 요         | 예            |              |
| 지지정당 | 한나라당  | 218 (27.7%)   | 2 (1.8%)     | 220 (24.4%)  |
|      | 민주당   | 48 (6.1%)     | 2 (1.8%)     | 50 (5.6%)    |
|      | 민주노동당 | 71 (9.0%)     | 76 (67.9%)   | 147 (16.3%)  |
|      | 기타    | 451 (57.2%)   | 32 (28.6%)   | 483 (53.7%)  |
| 전 체  |       | 788 (100.0%)  | 112 (100.0%) | 900 (100.0%) |

\*p<.05, \*\*p<.01

〈표 13〉 투표후보와 지지정당 교차표(카이제곱=1046.25\*\*)

|       |            | 지 지 정 당 |        |        |        |        |        |        | 전 체    |        |
|-------|------------|---------|--------|--------|--------|--------|--------|--------|--------|--------|
|       |            | 한나라당    | 민주당    | 자민련    | 민국당    | 한국신당   | 민노당    | 지지정당없다 |        |        |
| 투표 후보 | 한나라당 이주영   | 197     | 1      |        |        |        |        | 32     | 230    |        |
|       |            | 94.3%   | 2.1%   |        |        |        |        | 23.9%  | 42.1%  |        |
|       | 새천년민주당 차정인 | 7       | 39     |        |        |        |        | 40     | 86     |        |
|       |            | 3.3%    | 83.0%  |        |        |        |        | 29.9%  | 15.8%  |        |
|       | 자민련 김영성    |         |        | 2      |        |        |        | 4      | 6      |        |
|       |            |         |        | 100.0% |        |        |        | 3.0%   | 1.1%   |        |
|       | 민주국민당 심태희  |         |        |        | 2      |        | 1      | 2      | 5      |        |
|       |            |         |        |        | 100.0% |        | .7%    | 1.5%   | .9%    |        |
|       | 민주노동당 권영길  | 5       | 7      |        |        | 4      | 147    | 56     | 219    |        |
|       |            | 2.4%    | 14.9%  |        |        | 100.0% | 99.3%  | 41.8%  | 40.1%  |        |
|       | 전 체        |         | 209    | 47     | 2      | 2      | 4      | 148    | 134    | 546    |
|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p<.05, \*\*p<.01

### 5. 투표인의 노조가족유무와 투표선택과의 관계

투표선택과 투표인의 노조가족원유무간의 이 변량 교차분석결과가 〈표 14〉에 제시되었다. 창원읍구에서 투표선택과 투표인의 노조가족원유무간에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람다=0.28)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중에 노조 가입자가 있는 투표자는 압도적으로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93.8%)한 것으로 보인다. 즉, 노조가족 유권자들은 한나라당 이주영(3.1%) 후보나 민주당 차정인(2.1%) 후보에게 표를 거의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노조가족 일반유권자들은 약 반(50.8%) 이상이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를 투표 선택하였으며,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게도 28.2%의 표를 주었다. 특히 비노조가족 유권자로부터 민노당 권영길 후보가 민주당 차정인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14〉 투표후보와 노조가족원간의 교차표(카이제곱=143.01\*\*)

|                  |          | 가족 중에 노조 가입자? |             | 전 체          |
|------------------|----------|---------------|-------------|--------------|
|                  |          | 아니요           | 예           |              |
| 투<br>표<br>후<br>보 | 한나라당 이주영 | 227 (50.8%)   | 3 (3.1%)    | 230 (42.4%)  |
|                  | 민주당 차정인  | 84 (18.8%)    | 2 (2.1%)    | 86 (15.8%)   |
|                  | 자민련 김영성  | 6 (1.3%)      |             | 6 (1.1%)     |
|                  | 민국당 심태희  | 4 (0.9%)      | 1 (1.0%)    | 5 (0.9%)     |
|                  | 민노당 권영길  | 126 (28.2%)   | 90 (93.8%)  | 216 (39.8%)  |
| 전 체              |          | 447 (100.0%)  | 96 (100.0%) | 543 (100.0%) |

\*p<.05, \*\*p<.01

〈표 15〉은 제 16대 4.13 총선에서 창원을구 유권자 가운데 투표선택을 표명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선택에 관한 다항 로짓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에게 대비시켰으며, 또한 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민주당 차정인 후보에게 대비시켰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를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에 대비시킨 분석결과는 성별, 연령, 출신지역이 같은 조건일 경우에 여전히 노조가족 유권자는 민노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노조가족 투표자가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 대신에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게 표를 주었을 승수(odds)는 비노조가족 일반투표자의 승수에 비하여 1.67배이다. 이는 〈표 14〉에서 본 바와 같이 노조가족 투표자가 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통제변수로 사용된 여성 투표자가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 대신에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게 표를 주었을 승수는 남성 투표자의 승수에 비하여 0.73배이다. 즉 여성 투표자들은 민노당 권영길 후보보다는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를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통제변수인 연령을 살펴보면 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0대, 30대, 40대, 60대 이상, 50대 순서로 투표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대 투표자가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 대신에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게 표를 주었을 승수(odds)는 60대 이상 일반투표자의 승수에 비하여 2.72배이며, 30대는 2.29배이고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승수이다. 그러나 40대와 50대 투표자가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 대신에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게 표를 주었을 승수(odds)는 60대 이상 일반투표자의 승수에 비하여 각각 1.34배와 0.79이나,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승수이다.

또 다른 통제변수인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출신 투표자가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 대신에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게 표를 주었을 승수(odds)는 비영남 출신 투표자의 승수에 비하여 0.54배이며, 부산/울산/경남 출신의 투표자는 0.53배이고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승수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영남출신인 투표자는 3명 가운데 1명이 민노당 권

영길 후보를 선택하였다면 2명은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15〉 창원읍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선택에 관한 다항 로짓모델<sup>7)</sup>

| 변 수                                   | (노)권영길/(한)이주영 |      | (노)권영길/(민)차정인 |      |
|---------------------------------------|---------------|------|---------------|------|
|                                       | 계수            | 표준편차 | 계수            | 표준편차 |
| 절편                                    | -.82          | .55  | -1.45*        | .70  |
| 노총가족                                  | .51*          | .24  | .56*          | .26  |
| 성별(여자)                                | -.32**        | .08  | -.09          | .09  |
| 연령                                    |               |      |               |      |
| 20대                                   | 1.0**         | .26  | .04           | .32  |
| 30대                                   | .83**         | .23  | -.09          | .30  |
| 40대                                   | .30           | .23  | .23           | .30  |
| 50대                                   | -.23          | .27  | .28           | .36  |
| 출신지역                                  |               |      |               |      |
| 대구/경북                                 | -.61**        | .17  | .52**         | .17  |
| 부산/경남/울산                              | -.64**        | .13  | .52**         | .10  |
| Pearson Chi Square = 139.94**         |               |      |               |      |
| Pseudo-R <sup>2</sup> (Entropy) = .32 |               |      |               |      |
| N = 532                               |               |      |               |      |

\* p<0.05; \*\* p<0.01

민노당 권영길 후보를 민주당 차정인 후보에 대비시킨 분석결과는 성별, 연령, 출신지역이 같은 조건일 경우에 여전히 노총가족 투표자는 민주당 차정인 후보보다는 민노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노총가족 투표자가 민주당 차정인 후보 대신에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게 표를 주었을 승수(odds)는 비노총가족 일반투표자의 승수에 비하여 1.75배이다. 노총가족 투표자가 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통제변수로 사용된 성별(여성)과 60대 이상에 대비한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은 민노당 권영길 후보와 민주당 차정인 후보를 투표 선택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다른 통제변수인 투표자의 출신지역은 민노당 권영길 후보와 민주당 차정인 후보를 투표 선택하는 데 있어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영남지역 출신 투표자가 민주당 차정인 후보 대신에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게 표를 주었을 승수는 비영남 출신 투표자의 승수에 비하여 1.68배이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영남지역 출신 투표자들은 민주당 차정인 후보보다는 민노당 권영길 후보를 1.68배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7) Multinomial Logit Models의 이론과 해석방법에 대하여는 Liao (1994), Menard (1995), Green (1997)에 잘 설명되어 있다.



## V. 결 론

창원을 선거구에서 노조가족구성원이라는 요소는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투표자의 출신지역, 연령, 성별과 같은 사회적 집단요소와 더불어서 노조는 노조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표를 주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노조가족구성원이라는 요소가 투표선택에 있어서 유권자의 지역주의에 근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투표자 가족 중에 노조원의 유무가 심리적 투표요인인 후보자에 대한 느낌(Feeling)에 있어서 차갑거나 따뜻한 감정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사회적 집단요소인 노조는 또한 노조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합리적 투표선택 요인인 후보자의 자질 평가와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공약을 인지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인지하는 투표자가 적음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공약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는 미지수이다. 넷째, 이 외에도 사회적 집단요소인 노조는 노조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주는 정당을 지지하는 데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았으며, 지지정당은 또한 투표선택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권영길 후보와 최용규 후보가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구에서 1위와 근접하는 접전을 벌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제도권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였다. 민주노동당은 당초 목표로 했던 2002년 대선 출마, 2004년 총선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정계의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민노당이 선거 때만 진보의 기치를 내걸고 나오는 정당이 아닌 노동자, 서민층과 중산층을 포괄하여 대변하는 대중정당이 되지 않고서는 앞날이 밝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제 16대 총선에서 창원을구 선거가 보여준 바에 의하면, 진보정당이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장년 층과 노년층을 대변하지 않고는 다음 선거에서도 원내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창원을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울산북구의 최용규 후보와는 달리 노동자 가족 유권자의 표를 거의 모두 흡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에게 패하였다는 점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진보정당인 영국의 노동당이 1979년 총선이래 1992년 총선까지 4번 연속하여 패배하였으나, 1994년 7월 이래로 노동당을 이끌고 있는 토니 블레어(Tony Blair)가 노동당을 정치적 중도노선에 가깝도록 재편성하여, 사회주의자들의 과거를 과감히 탈피하고, 노동조합자금에의 의존도를 줄여나감으로서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하였다는 점에 한국의 진보정당 추진세력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중추적 기반인 노조가 한국의 정치민주화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정당구도가 진보와 보수로 정책상의 차이를 보이고 생산적인 국회운동을 위해서는 당내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직선거를 위한 공천과정을 현재와 같은 총재 중심의 하향식 공천에서 정당원과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제 16대 4.13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기성 정당과는 다르게 지구당원 전체가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고, 당원들의 모금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점은 한국정치의 민주화에 의미 있는 일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울산이나 광양과 같은 노동자 밀집지역에도 적용하여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가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 참 고 문 헌

- 김산. (2000). "4.13 총선평가와 민주노동당의 진로." 민주노동당(www.kdnp.org) 자료실.
- 장상환. (2000). "4.13 총선평가와 민주노동당의 진로." 2000년 한국산업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중앙일보, 「바른선택 2000! 16대 국회의원 선거」. <http://www.joins.com/series/vote/>.
- 중앙일보, 2000년 4월 14일 6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당선인명부」.
- 창원시. (2000). 「노정계 내부자료」.
- Axelrod, Robert. (1972). "Where the Votes Come From: An Analysis of Electoral Coal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 11-20.
- Axelrod, Robert. (1986). "Presidential Election Coalitions in 198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281-284.
-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anklin, Mark N. (1985). *The Decline of Class Voting in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 William H. (1997). *Econometric Analysis*.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 Kenney Patrick J. and Rice Tom W. (1988). "Presidential Prenomination Preferences and Candidate Evalu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1309-19.
- King, Anthony. (1998). *New Labor Triumphs: Britain at the Polls*. Chatham: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 Kim, Jung-Ki. (1996). *Utility Functions and Causality in U.S. Presidential Voting Decis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uston).
- Lazarsfeld, Paul, Bernard Berelson, and Helen Gaudet. 1944, (1948).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ao, Tim Futing. (1995). *INTERPRETING PROBABILITY MODELS: Logit, Probit, and Other Generalized Linear Model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Menard, Scott. (1995). *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Page, Benjamin I. and Jones, Calvin C. (1979). "Reciprocal Effects of Policy Preferences, Party Loyalties and the Vo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1071-90.
- Schmidt, Steffem W., Mark C. Shelley and Barbara A. Bardes. (1999).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Today*.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

김정기: Univ. of Houston 정치학박사. 현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강정운: Univ. of Delaware 도시정책학박사. Univ. of Washington Fulbright Senior Scholar. 현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Appendix

### 제 16대 총선 창원읍구 여론조사 설문지 (2000.04.07-12)

1.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세는 몇 세 이신지요?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유권자와의 통화를 의뢰함)
2. 성별은?  
1) 남 2) 여
3. 선생님께서는 오는 4월 13일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시겠습니까?  
1) 반드시 투표하겠다.  
2) 별일 없으면 투표하겠다.  
3) 아직 모르겠다.  
4) 관심이 없는 편으로 투표하지 않겠다.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종료하면서 감사표시를 한다.)
4.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나요?  
1) 한나라당      2) 새천년민주당      3) 자민련      4) 민주국민당  
5) 한국신당      6) 민주노동당      7) 지지정당없다      8)무응답
5. 만일 내일 선거가 있다면 등록된 후보 중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1) 한나라당 이주영      2) 민주당 차정인  
3) 자민련 김영성      4) 민국당 심태회  
5) 민주노동당 권영길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번 더 다음 질문을 한다.) 그래도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후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요?      7) 미정      8) 응답거부
6.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소속된 분이 계신지요?  
1) 예      2) 아니오
- 7-1.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에 대하여 어떠한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요?  
1) 매우 따뜻함    2) 따뜻함    3) 약간 따뜻함    4) 아무 느낌도 없음  
5) 약간 차가움    6) 차가움    7) 매우 차가움      8) 모름    9) 무응답
- 7-2. 민주당 차정인 후보에 대한 느낌은요?
- 7-3. 자민련 김영성 후보에 대한 느낌은요?

7-4. 민국당 심태회 후보에 대한 느낌은요?

7-5.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대한 느낌은요?

8-1. 한나라당 이주영후보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1)매우 우수 2)우수 3)약간 우수 4)보통  
5)약간 부족 6)부족 7)매우 부족 8)모름 9)무응답

8-2. 민주당 차정인 후보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은요?

8-3. 자민련 김영성 후보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은요?

8-4. 민국당 심태회 후보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은요?

8-5.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은요?

9-1.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정책이념을 선호하시는지요?

- 1)매우 진보 2)진보 3)약간 진보 4)중도  
5)약간 보수 6)보수 7)매우 보수 8)모름 9)무응답

9-2. 한나라당 이주영후보의 정책공약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1)매우 진보 2)진보 3)약간 진보 4)중도  
5)약간 보수 6)보수 7)매우 보수 8)모름 9)무응답

9-3. 민주당 차정인 후보의 정책공약은요?

9-4. 자민련 김영성 후보의 정책공약은요?

9-5. 민국당 심태회 후보의 정책공약은요?

9-6.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정책공약은요?

10. 귀하의 직업은 무엇인지요?

- 1) 공무원 2) 자영업 3) 사무영업직 4) 생산기술직  
5) 학생 6) 주부 7) 전문직 8) 무직 9) 기타(농업 등)

11. 귀하의 출신지(고향)는 어디이신 지요?

- 1)서울 2)부산/경남/울산 3)인천/경기 4)대구/경북  
5)전라남북도 6)충청남북도 7) 강원도 8)제주/이북/기타

12. 선생님 가족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 1)상층 2)중상층 3)중층 4)중하층 5)하층 6)무응답(모른다 포함)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여론조사를 종료한다)

-----  
○○○님께서 거주하시는 동명은? 동명 코드를 조사자가 코딩쉬트에 기입한다.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조사자가 코딩쉬트에 기입한다.